현불논단

다시 '문학 포교'에 관심을



주석 스님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

종교와 문학, 同根서 나온 나뭇가지
불교경전들 산문과 게송으로 이어져
문장 하나하나 응축된 문학작품 같아
종교 · 문학, 보완 · 견제하며 발전해

현재 종교와 문학은 모두 위기 시대
불교, 포교 위해 문화예술 관심가져야
문화예술 전법 방편으로 문학 주목을

종교와 문학은 인간의 의식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나뭇가지와 같다.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유려하고 함축적이며 서사적인 표현으로 구성된 경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교와 문학이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다.

2500년 전에 전법을 행하신 붓다의 말씀을 기록한 경장(經藏)들은 한결같이 기승전결의 부드러운 흐름을 갖춘 산문으로 서술되다가 결말에 이르러 이를 함축한 아름다운 운율의 시와 같은 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교의 경전은 그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문장 하나하나가 모두 현대적인 소설과 시, 수필과 동일한 문학적 형식으로 서술되는 웅장한 문학작품인 것이다.

다만 현대에 이르러 문학은 삶에 대한 교훈적 가르침이라는 소재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리면서 일견 종교와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학은 인간의 삶에 대한 전지적 관점의 통찰력을 제공하는 예술 장르로서의 높은 가치는 여전하다. 사람들은 문학 작품을 통해 수용한 간접 체험을 직관력의 영역으로 유입시켜 지식과 경험의 확장 수단으로 능숙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얻은 지식은 직접 경험한 것 못지않게 생동감 넘치는 언어와 문장으로 획득한 것이기에 단순한 암기를 통해 강제로 주입된 지식과는 확연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텍스트로 서술되는 문학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어렵고 복잡한 경전을 우회하는 제2의 지혜의 통로와도 같은 순기능까지 제공할 수 있다. 그러기에 문학은 종교에 대해 경전만으로 채울 수 없는 개인적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키고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보완재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문학은 작품을 통해 종교를 배척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미화할 수도 있다. 반면 종교는 문학 작품과 작가를 이단으로 단죄할 수도 있고 반대로 경전에 버금가는 높은 단계의 예우를 베풀 수도 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획득한 현대의 문학은 종교와는 서로 보완적이면서도 팽팽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관계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종교와 문학의 관계는 새로운 변곡점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구의 감소와 문사철로 표현되는 인문학 분야의 위기가 동시에 찾아 온 것이다. 종교적 충성도의 하락이 문학에 대한 무관심과 동시에 벌어지는 것은 어쩌면 종교와 문학은 그 뿌리가 같다는 사실에 대한 또 다른 방증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종교의 위기는 오히려 불교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절대적인 신이 인간의 삶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면 연기법에 기반한 불교는 여전히 대칭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과학기술과 충돌하지 않는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불교의 가르침은 시대상황에 맞게 새로운 방편을 활용해 펼쳐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 새로운 방편으로 우리는 문화예술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의 시기에는 먹을 것을 기르던 마당을, 풍요의 시대에는 아름다운 꽃을 가꾸며 정신적 위안과 함께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편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다시 현대의 불교는 스스로 문화예술을 가꾸면서 조금 더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 전법의 한 갈래로서 우리는 다시 문학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은 어떨까. 아름다운 화초를 가꾸듯이 불교와 문단이 합심하여 정직한 언어와 유려한 문장으로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절망과 공포를 희망과 평화로 바꾸어 주는 새로운 문학을 길러내는 창작 인큐베이터를 만들 것을 제안해 본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길러진 문학작품들이 대중적으로 널리 향유되고 작가와 독자들이 깊이 소통하는 문학 플랫폼을 구축해 불교문학 융성의 초석으로 활용할 것도 함께 제안해 본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⑧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회개와 회심

넷플릭스 6부작 드라마 '수리남'은 '범죄와의 전쟁 : 나쁜 놈들 전성시대'의 감독인 윤종빈이 메가폰을 잡고, 하정우, 황정민, 장첸, 박해수, 유연석, 조우진, 추자현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서 방영 전부터 화제가 됐다.

'수리남'은 한국계 수리남 마약왕 조봉행의 삶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이다. 조봉행은 1980년대에 한국에서 선박냉동기사로 일했던 터라 8년 동안 수리남에서 거주할 수 있었다. 1994년 사기 혐의로 수배되자 그는 수리남 국적을 취득한 뒤 생선 가공공장을 차렸다. 이후 그는 남미 최대 마약 카르텔인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고 마약 사업에 손을 댔다.

그의 마약 사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하자 2005년 인터폴은 수배명단에 그의 이름을 올렸다. 그가 한국으로 마약을 공급할 계획임을 인지한 국가정보원은 미국 마약단속국(DEA), 브라질 경찰과의 공조작전을 통해 2009년 그를 체포했다. 조봉행의 체포에 어려움을 겪던 국가정보원에 도움을 준 인물이 있었다. 그는 수리남에서 사업을 하다가 조봉행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는 목숨이 걸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봉행을 잡는 데 협조했다.

이상 사실과 달리 드라마에서는 수리남 마약왕인 전요환이 사이비 목사로 설정돼 있다.

'수리남'을 보고서 필자는 회개(悔改)와 회심(回心)에 대해 숙고했다. 드라마에서 사이비 목사인 전요환이 부하에게 "아직 회개가 덜 됐구만"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사탄, 주님, 아멘 등 기독교 용어들이 수시로 등장한다.

김용규는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에서 '죄인(罪人)'의 반대말은 '의인(義人)'이라고 정의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신을 거역하고 떠나는 것', 내지는 '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뜻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는 법률상의 죄가 아니라 '인간이 신에게서 돌아선 원죄'인 동시에 '존재물이 존재를 떠나 존재를 상실한 존재론적 죄'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도식화하면 신에게 돌아선 사람이 죄인이고, 신을 향해 있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다. 죄인이 되지 않고 의인이 되는 길은 회개함으로써 신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다. 반면 유일신교와 달리 자력신앙인 불교는 회심을 강조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인 앙굴리말라도, 정신지체장애자인 출라판타카도, 매춘부였던 암바팔리도 모두 회심한 끝에 불법에 귀의할 수 있었다.

회개와 회심은 공통점이 있다. 회개든 회심이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리남'의 마지막 회에서 상여금 대신 단란주점 운영권을 주겠다는 최창호(박해수 분)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강인구의 모습은 인상 깊다. 그는 이미 수리남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삼독심(三毒心)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지족임을 깨달았던 것이리라.

〈소설가〉

社 說

템플스테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을

2002년 운영을 시작한 템플스테이가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며 그 의미를 전해왔다.

2002년 33개 사찰에서 시작, 현재 전국 143개 사찰에서 운영될 정도로 템플스테이는 명실상부한 한국전통문화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년 동안 600만 명의 내외국인이 템플스테이를 찾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종합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10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템플스테이가 △한국문화 세계화 △국민행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 가치 창출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실제 템플스테이는 2009년 OECD에서 '세계의 성공적인 5대 관광상품'으로 선정 등 세계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국가 브랜드 제고에 기여했다.

또한 각종 연구에서 템플스테이는 성인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 삶의 질 향상 등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 20년을 성공적으로 성장한 템플스테이는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중국과 일본의 유사 템플스테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며, 운영인력들의 전문화도 숙제로 꼽혔다. 나아가 MZ세대와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 마케팅도 요구되고 있다. 아직까지 템플스테이를 '문화'가 아닌 '종교'로 인식하는 일부 대중들의 편견도 극복해야 한다.

템플스테이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됐다. 더 발전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은 필수다. 템플스테이가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15주년에 부쳐

남북 불교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 신계사가 복원 15주년을 맞았다. 보운조사가 창건(519년)한 금강산 신계사는 역사적으로 왕실 원당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한국전쟁으로 소실됐다. 이후 2004~2007년 남한의 조계종과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을 중심으로 남북이 손잡고 복원 불사가 이뤄졌다.

당시에는 내금강 장안사 복원까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일로(惡化一路)로 치달으면서 후속과정이 일체 진행되지 못했고 신계사는 갈 수 없는 곳이 됐다. 매해 연초 "올해는 남북교류의 길이 열려 신계사에서 법회를 봉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단절상황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금강산 신계사는 단순한 산중 절이나 종교시설물이 아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북한 소재 성역화 불사의 상징이고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는 남북 민간교류의 성공적인 사례이자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상징이다. 복원불사 이후에도 남측 스님이 상주하며 북측 스님들과 함께 남북 공통분모인 불교를 통해 통일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해왔던 곳이다.

신계사 복원 15주년인 올해 역시, 신계사에서 기념법회를 봉행할 수 없었지만 내년에는 다시 교류가 재개, 남북불교가 함께 만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길 바란다. 양측 불교도들의 합동법회와 이산가족 만남 등 새로운 교류 사업을 추진, 한반도 통일의 온풍이 신계사에서 시작되길 기대해본다.

신계사가 남북교류와 화합, 평화통일의 상징인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다시 한 번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날이 오길 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먹는 법
한 포씩 500ml물에 타서 수시로 나누어 마신다
나만의 요리에 조금 뿌려 먹는다
컵에 조금씩 넣고 따뜻한 물을 부어 차처럼 나누어 마신다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